



《우리에게 다가온 조선족은 누구인가》 낸 사학자 임계순

중국과 수교하기 이전이었다. 한양대학교 사학과 임계순(60) 교수는 교육부 파견교수 자격으로 1991년에서 1992년까지 북경대학교 역사학과에서 연구활동을 하면서 하남성 낙양대학에 출강하고 있었다. 중국어가 서툴렀던 임 교수로서는 조선족의 도움이 절실했고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마다 '아 역시 우리는 동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동포에는 오래 가지 않았다.

“나중에야 알았죠. 수교 이전이라 3개월마다 홍콩에 가서 비자를 다시 만들어야 했는데 15달러면 될 일을 100달러를 받은 거예요. 부자 친척 정도라고 할까요. 그들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고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저에게 과도한 기대를 한 거죠.”

그야말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었다.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자 임 교수는 앞으로 조선족은 쳐다보지도 말아야겠다는 생각까지 했다. 하지만 그럴 순 없었다. 여전히 그들의 도움이 필요했고 같은 민족으로서 마냥 미워할 수도 없었

한·북·중 평화정책
가교역적 임무자
200만 조선족과 그들의 이중문화

다. '나에게 왜 그랬을까?' 임 교수는 이 일을 계기로 보다 객관적으로 조선족을 이해해 보기로 했다.

1992년 8월 한·중 수교 후 가족상봉을 비롯해 산업연수, 결혼 등 조선족과의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조선족으로서는 88올림픽과 중국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를 보고 그려왔던 조국은 뜻밖이었다. 반가움도 잠시, 어느 순간부터 조선족과 한국인은 불법체류자와 악덕고용주의 관계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200만 조선족들이 모두 우리의 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군요. 실제로 한국에 왔다가 돌아간 조선족들이 한국에 악감정

을 가지고 해코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임 교수는 서둘러 《우리에게 다가온 조선족은 누구인가》를 쓰기 시작했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서로에 대한 무지와 과도한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조선족이 어떤 사람이며 또 중국이나 한국 모두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안다면 이러한 갈등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임 교수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언제부터 중국 동북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여 어느 곳에 정착하였으며, 어떻게 중국 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가 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살폈다. 그동안 동북지역의 항일운동사는 있었지만 한국에서의 본격적인 조선족사 연구는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임 교수는 우리가 조선족을 대할 때 간과하기 쉬운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중국정부의 소수민족정책과 종교정책이라고 말한다. 중국의 역사는 흉노, 선비, 거란, 몽골 등 변방에 있는 소수민족과의 싸움의 역사이기도 했다. 소수민족 정책은 이러한 중국의 역사와 함께 지속된 정책이다. 때문에 끊임없이 소수민족의 동태를 살피고 가능하면 이들 소수민족을 한족화漢族化하려고 해왔다. 다행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부는 다민족국가체제를 수용하고 소수민족의 권리와 이해 그리고 문화적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통합된 중국 아래 소수민족의 다양성을 살려주려는 것이지 독립적인 정체성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한국인이 중국에 가서 만주는 한국 땅이라고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국정부로서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종교 역시 마찬가지다. 백련교도의 난, 태평천국의 난 등 중국역사에서 반정부운동은 거의 종교집단과 연결되어 있었다. 중국정부에서 파룬궁을 탄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성당이 있지만 그 안의 성직자는 중국정부가 임명한 것으로 로마 가톨릭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사정을 모른 채 한국인이 조선족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선교활동을 펼치는 것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다. 이는 자칫 중국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재외국민법 개정을 앞두고 일부 조선족이 국적회복을 위해 시민단체와 시위를 벌인 일이 있습니다. 이는 외교적인 문제이지 단순히 인도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어떤 계 국익을 위한 것인지 또 그들을 위한 것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중국정부의 입장에서 중국의 단결을 해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중국 내에서 조선족의 위치도 흔들리게 할 것이 당연합니다.”

임 교수는 중국에서 사업을 펼칠 기업인이나 중국과 관련해 각종 정책을 펼칠 정책입안자도 이 책을 읽어야 하겠지만 누구보다 조선족들이 이 책을 읽어줬으면 한다.

“청나라가 봉금지대로 한인과 조선인의 출입을 통제했던 동북 3성 지역에 가장 먼저 벼농사를 전파한 사람은 조선족입니다. 이후 철도를 놓고 철광을 개발한 사람 역시 조선족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조선족입니다.”

뿐만이 아니다. 동북 3성 지역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사람 역

시 조선족들이었다. 조선공산당은 이 지역에서 제국주의 열강과 군벌을 타도하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선 세력이었다. 또한 일본이 물러간 후 모택동을 도와 장개석 군대와 싸움으로써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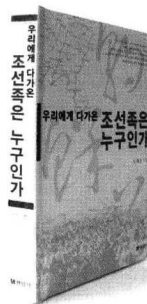
“자칫 지루할지도 모르지만 이 부분을 가능한 한 자세히 다룬 것도 이를 알고 조선족 스스로가 당당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였습니다. 조선족은 국경을 넘어 더부살이한 게 아닙니다. 중국건설의 주역이었습니다.”

임 교수가 특히 조선족에게서 주목한 것은 한민족이면서 중국인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문화다. 이러한 특성이 한국과 중국, 한국과 북한을 잇는 가교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조선족이 중국의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한국사회가 조선족사회와 성공적으로 교류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중국 내 소수민족이고 중국 국민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국정부는 조선족을 상대로 경제지원과 투자를 해 중국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해야 합니다. 중국사회에서 조선족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 한국경제와 국가발전에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임 교수는 책의 인세 절반을 한국인에게 피해를 당한 조선족 자녀의 장학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이 책을 쓰기 위해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한국인에게 사기를 당한 조선족 자녀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친척집이나 길거리로 내몰리는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겨레**

취재 신동섭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우리에게 다가온 조선족은 누구인가》
임계순 지음 | 현암사 | 424쪽 | 값 15,000원